

# 청년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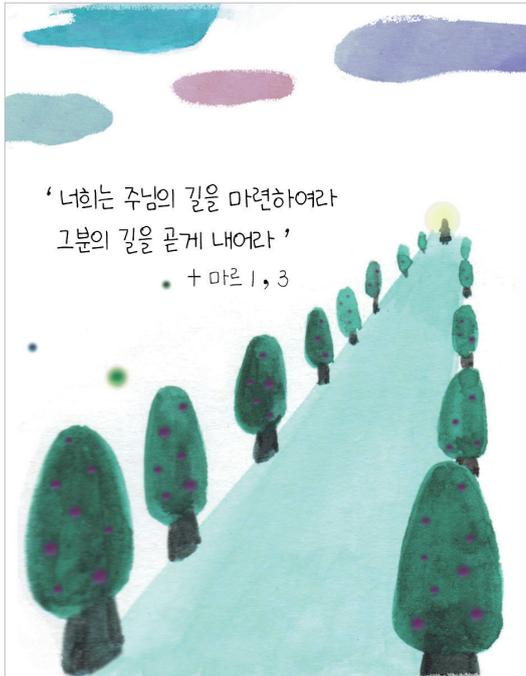


그림 | 강마리아

**입당송** 이사 30,19,30 참조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이사 40,1-5,9-11

**화답송** 시편 85(84),9-10-11과 10,11-12,13-14(◎ 8 참조)

-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 하느님 말씀을 나는 듣고자 하노라.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그분을 경외하는 이에게 구원이 가까우니 영광은 우리 땅에 머물리라. ◎
-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진실이 땅에서 돌아오고 정의가 하늘에서 굽어보리라. ◎
- 주님이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정의가 그분 앞을 걸어가고 그분은 그 길로 나아가시리라. ◎

**제2독서** 2베드 3,8-14

**복음환호송** 루카 3,4,6

- ◎ 알렐루야.
-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

**복음** 마르 1,1-8

**영성체송** 바룩 5,5; 4,36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인권연대연구센터에 몸 담고 있는  
청년 인터뷰

## 연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정다빈 멜라니아

### Q1. 신앙 안에서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연구센터는 예수회 한국관구에 소속된 사회사도직 기관으로 가톨릭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따라 평화, 인권, 환경 문제를 위해 연대하고 연구하는 곳입니다. 저는 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마주하고 성찰해야 할 사회적 주제에 대해 글을 쓰고,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참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사람을 부르고 쓰시는 것 같습니다. 일상 안에서 이 부르심을 느끼며, 언제나 기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담담하게 응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Q2. 활동하면서 하느님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교회 안팎의 단체와 연대하며 함께 일할 때가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하다 보면 오해나 갈등이 생길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리저리 치이며 "평화를 위해 일하는데 왜 우리 안에는 평화가 없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목표했던 일이 끝나고 돌아보면 역시 모든 것이 감사하게 느껴 집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기적처럼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역시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정다빈 멜라니아 자매님의 이야기는 4면 신앙일기에서 계속됩니다.



### Q3. 활동을 하며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성구가 있다면?

"자애와 진실이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시편 85,11) 우리가 이 땅에서 일구고자 하는 하느님 나라의 모습은 이런 곳이구나 생각합니다.

# 실천하는 삶



맹보영 마태오  
왕십리 성당

오랜 시간 교회 안에서 봉사하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 친한 친구가 된 사람도 있고, 얼굴을 보는 것이 불편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나를 변하게 해준 멘토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 나를 떠나간 사람도, 내가 떠나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일까? 그저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기도하고 있고, 정작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한 건 아닐까...?’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했지만 다른 이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아직 변하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된 사람에겐 사과하는 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 어려운 이에게 먼저 다가가는 일...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사목위원회에서 근무하다 보니 연대활동을 통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차별받는 노동자들, 산업재해로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의 유가족, 부당해고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 그들을 돕기 위해 많은 이들이 함께 연대합니다. 예술가, 학자, 활동가, 종교인. 각자 삶도 환경도 성향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라 보니 가끔 크고 작은 말다툼이 생길 때도 있지만, 어려움에 부딪친 이들을 돕겠다는 같은 이유로 함께하기에 그런 다툼은 사소한 일이지요. 그래서 각자가 너무 다른 사람들임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더욱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연대합니다.

그 시간을 보내며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를 생각했습니다. ‘사소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았나? 내 생각만 앞세우고 다른 이들의 생각은 무시하고 살았구나...’

입으로만 하느님을 이야기하며 다른 이들을 나의 잣대에 맞춰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노력했다면 나와 다르더라도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오늘 복음에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마르 1,3)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찰은 신앙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찰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하는 삶으로 향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길을 마련하는 과정이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릅니다. 모든 것이 정답인 사람도, 모든 것이 틀린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과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피조물이니만큼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간추린 사회교리 144항)



## 주님이 머문 자리

현재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성당에서의 모든 단체활동도 멈추어 있습니다.  
성가 반주를 하며 미사 봉헌을 하고 싶은 아쉬운 마음을 애써 다독입니다.  
그 시간 십자가를 잡고 묵상하며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느껴봅니다.

[오선옥 아녜스 / 화곡2동 성당]

# 『말씀가지』

성경 구절의 의미를 찾고  
성찰하는 길

기쁜 소식 : 하느님 나라 선포

- ‘예수의 기쁜 소식(복음)’에서  
‘예수의’라는 소유격 해석의  
두 가지 의미
1. 예수에 대한 기쁜 소식
  2. 예수가 전한 기쁜 소식

복음 : ‘에우 안젤리온’ (그리스어)  
에우 : 좋다, 기쁘다 /  
안젤리온 : 소식

시작 : 1) “한 처음에”(창세 1,1)를 연상시킴  
2) ‘아르케’는 그리스어 첫 글자 α(알파)로 시작하는 것으로 근원적 ‘시작’인 동시에 그 시작의 ‘근거’, ‘기원’등을 나타내며, 그 내용이 예수그리스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힘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마르 1,1)  
예수님은 누구 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남)

과정 : 하느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받아 선포하셨다.  
→ 마르코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 전한다.  
→ 그리스도인들이 마르코에게서 그 복음을 듣고 믿는다.

**오늘의 말씀** <마르코 복음 1,1-8>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느님은 물로 그들을 씻고  
그들 안에 영을 넣어 주심  
(성령)으로  
백성을 새롭게 할 것이다.  
- 세례자 요한과 하느님의  
다른 사실

곧 오실 분 :  
하느님의 아들 예수



designed by [freepick] from Flaticon  
**복음의 시작**



designed by [freepick] from Flaticon  
**예수 등장 이전**

세례자 요한의 등장... 회개의 선포와 세례를 베푸

이사가 예언자의 예언(이사 40,3)에 따라 예수의 길 준비,  
예수에 대해 증언함  
장소적 배경 : 광야

회개 : 방향을 온전히 하느님께  
돌리는 것을 의미  
세례 : ‘정화’, ‘정결’을 뜻하며  
‘용서 받았음’을 상징하는 예식  
요르단 강에서 침례로 행해짐

나타 털옷을 입고 가죽 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  
고 살았다.(1,6) - 가난한 자의  
모습, 하느님께 바쳐진 자로 충  
직하게 사는 모습

회개, 세례, 죄의 용서 모두  
하느님에게서 오는 동일한  
은총의 선물

내 마음 밖에 다가온 말씀

##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시작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르단강에서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더욱 기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줍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만남을 통한 감정을 나눌 때 그 의미가 배가 됩니다. 세례를 받아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성경 구절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모든 순간은 만남이 있어야 기쁨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차원의 복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청년 그리스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편집부 이진영 아눈시앗다]

## 말씀 심기

● 당신에게 다가온 말씀은 무엇인가요?

~~~~~  
~~~~~  
~~~~~  
~~~~~

●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싶나요?

~~~~~  
~~~~~  
~~~~~

## 나는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인가?

정다빈 멜라니아 / 대구대학교 김천 평화성당

“발표자는 본당 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계세요?”

솔직히 당황했다. 평화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말하는 청년들의 발표 자리였고, 질문은 맥락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충실함을 물어오는 질문은 오래 남았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돌아보았다. 가톨릭 가정에서 나고 자란 모태신앙이지만 20대 중반까지도 나의 신앙은 깊다고 할 수 없는 편이었다. 오히려 우리 집의 경상도 보수주의와 결합한 가톨릭 보수주의가 숨이 막힌다고 생각했고, 대학에 들어가며 홀로 서울에 온 후에는 성당에 가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우연인지 운명인지 대학원을 졸업하고 줄곧 가톨릭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다. 교계 언론에서는 정의평화와 생태환경 분야 담당 기자였고, 지금은 가톨릭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사회정의를 위해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느님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 일꾼을 부르신다. 나는 어쩌다가 가톨릭 기관에서 일하는 평신도 협력자가 되었지만 돌아보면 내게는 큰 행운이었다.



내 어린 시절과 청년기 전체를 압도한 것이 인권과 인간의 다양성에 관한 관심이었다. 일하면서 마침내 나는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대로 인정받는 세상을 열망하고, 신앙의 언어와 문화 속에 자란 신앙인이 되고 싶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의미다. 서른이 되어서야 나의 사회적 자아와 신앙인으로서의 자아가 하나 되는 체험을 했다. 나에게서는 강렬한 체험이자 기쁨이었다.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공적인 삶에 대해 공부하고자 한다. 더 많은 사람이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주일에 본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의 모습 그 이상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이다. 나의 일상에서, 나의 일에서, 나의 사회적 선택에서, 나의 삶에서 나는 얼마나 참 그리스도인인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특별전 '오랜 기다림, 영원한 동행'**  
 때, 곳 2020년 11월 29일(일)~2021년 11월 27일(토),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절두산) / 사전예약 필수  
 문의 02)3142-4505 절두산 순교성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희년**  
**희년 상설고해소 운영**  
 일시 2020년 11월 28일~2021년 11월 27일  
 화~토 오전 10시~12시, 오후 15시~17시  
 장소 절두산순교성지 내 상설고해소